

전북혁신교육 10년 발자취 돌아본다

전북교육청, 19~23일 한마당 행사... 성과 공유·발전방향 모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북혁신교육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한마당 행사를 마련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9~23일까지 전북혁신교육 10년, 그 너머를 주제로 한 2020 전북혁신교육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전북혁신교육의 경험을 성찰하고, 실천·공유하는 지리이자 미래 혁신교육 발전 방향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연대와 협력 ▲어울림과 화합 ▲지속과 도약 ▲모두의 참여 ▲기록과 역사를 큰 틀로

해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먼저 19일은 여는 마당으로 꾸며진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참여해 전북혁신교육에 대해 말하는 '공간토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주요 패널리스트들이 참여해 전북혁신교육을 전망하는 '패널토의'가 마련돼 있다.

20일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주제로 한 강연과 토의가 21일에는 혁신학교 역사기록물과 공간혁신'을 주제로 혁신학교 역사기록물을 살펴보고, 전북공간혁신학교 사례 등을 공유한다.

특히 혁신학교 역사기록물은 대리초와 18교의 혁신학교 이야기를 단행본

으로 출판하며, 남원초 외 10개교의 영상도 상영한다.

이어 22일에는 '연대와 협력'을 주제로 주중일 화현초 교장이 주제강연을 진행하고, 혁신학교 교사·졸업생·학부모·직원 등이 차례로 혁신학교에서 경험한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3일에는 '지역공동체 포럼'이 전주 그래드힐스튜디오에서 열린다. 풀뿌리지역교육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추창훈 소양중 교장이 '교육의 미래,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맡는다

여기에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

직, 지역교사공동체, 전북교육협력지구, 청소년자치, 마을교육생태계 등을 대표하는 패널리스트의 다양한 의견도 들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여는 최소화하고, 모든 행사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도민은 유튜브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을 검색해 구독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다.

도교육청 혁신교육 담당 장학사는 "지난 10년간 전북혁신학교는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교자치를 확대하는 등 공공교육 혁신의 모델로 성장해왔다"면서 "혁신교육을 전북지역 모든 학교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체육회는 꿈나무 선수 발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 7일 첫 회의를 열었다.

전북체육회, 체육 꿈나무 발굴 '총력'

TF팀 구성... 첫 회의 열어

전북체육회가 전북체육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체육 꿈나무 발굴에 나섰다.

7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꿈나무 선수 발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영재 발굴 TF팀'은 도 체육회 임원을 비롯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학계, 스포츠클럽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TF팀은 체육 영재 발굴을 위한 각종 사업 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자문에 나서 개선점 발굴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아울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경

우 일회성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한다.

현재 도 체육회는 도내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1학년)을 대상으로 기초체력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비인기종목 선수 발굴·육성으로 전북체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한국 체육을 이끌어 갈 체육 꿈나무들을 발굴·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굴된 영재에 대해서는 맞춤형 훈련, 전문 지도자 교육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정광운 교수팀, 위조방지용 스마트 잉크 개발

재료공학 분야 세계 최상위 학술지 표지논문 게재

전북대학교 정광운 교수팀(고분자·나노공학과)이 온도와 편광 방향에 감응하는 위조방지용 필름을 개발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재료공학 분야 세계 최상위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Advanced Materials, IF=27.398, 상위 1.57%)' 10월 1일자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정 교수는 간단한 코팅공정으로 온도 변화와 편광 방향에 따라 색과 투명도를 제어할 수 있는 위조방지

용 스마트 잉크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정 교수팀에 따르면 이미다졸리움계 다이아세틸렌 (Imidazolium-based Diacetylenes)을 새롭게 설계하고 합성했다. 이들을 대면적에서 배향하고 광중합 함으로써 가시광선 전 영역에서 흡수하는 우수한 98.8%의 편광 특성을 갖는 필름을 얻었다.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된 스마트 잉크는 경제 및 군사 분야 보안 기술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정광운, 최유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에는 정 교수팀 최유진 박사가 제1저자로 연구를 주도했다. 최 박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

/정은성 기자

는 글로벌박사 펠로우십을 통해 (2016-2019년) 관련 분야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현재까지 제1저자로 10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201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총장상을 수상했으며, 내달부터 미국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재료공학과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실지원사업과 교육부 BK21 FOUR 사업으로 이뤄졌다.

전북대·무주군, 생물자원 공동 활용 '맞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무주군(군수 황인홍)은 생물의 연구와 교육, 전시를 위한 교류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7일 무주군청에서 김동원 총장과 황인홍 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생물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생물 관련 학술조사와 자원의 확보, 그리고 연구 개발에 함께 참여하고, 생물 표본이나 연구시설 등을 상호 이용키로 했다.

또한 상호 보유한 생물 보존 관련 기술과 정보, 인적 자산 등을 교류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특히 전북대 자연사박물관과 무주군 증박물관을 적극 활용해 생물 관련 학술조사와 생물 공동 채집 및 표본 제작 등에 힘쓰고 문화시설도 함께 활용키로 했다.

김동원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물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의 보전, 생물자원을 활용한 전시 및 교육 등에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 기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 민에게 좋은 전시를 선보이고,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무주군(군수 황인홍)은 생물의 연구와 교육, 전시를 위한 교류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가스안전은 가족사랑입니다. 축! 전주매일 창간

행복을 지키는 사람들

전북도시가스는 당신의 가스안전을 위해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굴착신고는 굴착시공 전 EOCS 접수로 1644-0001

1. 굴착공사계획 신고

☎ 1644-0001

🌐 www.eocs.co.kr

2. 접수번호 발급

3. 접수번호 발급

3.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4. 굴착공사개시 통보

5. 굴착공사 시행

전북도시가스(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개안길 31 / 전화 063)240-7700 www.jbcitygas.co.kr

도시가스 안전점검 사전 안내 서비스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사정한 범죄 예방 및 방문 예정일 사전안내 문자(SMS) 서비스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시가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240-7755-6)